

<지난주 말씀>

▶지난주에 신6:4-9를 통해 우리는 부모의 각인, 뿌리, 체질이 후대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맞다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4입니다. 24 내 마음 내 뜻 내 힘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넘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24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25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에게 25의 응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자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로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히 남을 작품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시키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후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과 미션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은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여러분에게 확신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미션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 창세기 3장 불신자 상태에 있던 나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아름다운 덕입니다.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둠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버릴 것과 찾을 것과 세울 것이 있습니다. 뭘 버려야 합니까? 나의 과거를 버려야 합니다. 나의 과거와 틀린 망대, 사탄의 망대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누구며 어떤 미션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여정을 찾아야 합니다. 세울 것이 있습니다. 나의 미래입니다. 나의 미래 이정표를 세우고 후대에게 남길 것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방향 속에 있습니까? 237 5000종족이라는 세계복음화의 방향 속에 있을 때 인생은 성공하게 됩니다. 세상의 흐름이 아닌 237 5000종족 세계복음화를 향한 흐름에 내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음에

누가 있느냐? 네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자신입니까? 그 사람은 나 중심입니다. 세상, 물질, 성공이 주인입니까? 그러면 그 종이 되어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나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

1. 남편과 아내에게 주는 메시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벧전3:1)**

가정에는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똑같은 인격으로 똑같이 대하지만 가정에는 질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기준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질서있는 가정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것을 보고 말씀을 받지 않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전도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남편에게 순종함을 통하여 불신자 남편이 구원을 받는 전도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 남편에게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경건한 행실을 보이라(벧전3:2)**

불신자들이 신자들의 행실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자세히 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벧전3:3)**

아내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 단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자의 단장은 무엇입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벧전3:4)**

이 말은 뭘니까? 내적 비밀을 가지고 하라, 영적 비밀을 가지고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육신적인 외모 단장으로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있는 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단장을 합니까? 명품으로 도배를 합니다. 그게 단장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서는 단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단장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벧전3:5)**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아내의 단장입니다. 순종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싸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없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가정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서 말씀이

기준이 안되고 세상이 기준되고 있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이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벧전3:6)**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만국의 어머니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자기의 주라고 고백할 만큼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만큼 세상이 지금 틀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값진 것을 가지고 산다면 이미 벌써 사라의 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벧전3:7)**

아내는 순종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은혜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 없이 자식이 없고 아내 없이 가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서 속에 있는 가정은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에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벧전3:8)**

동정이라는 말은 남의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면서 사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과 동정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나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나 중심입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겸손은 나 중심이 아닌 상대 중심입니다. 가정에 겸손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벧전3:9)**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것은 욕심내지 말라, 욕신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을 낳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빌면 복을 낳습니다.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긍휼을 입은 자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부다 욕심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

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벧전3:10)

얼마나 이 허가 악한지, 한 혀로 두가지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바라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여지는 혀가 되라는 것입니다. 악한 말은 복음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죽이는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지 죽이는 사람이 되어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벧전3:11)

화평은 위로부터 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부터 오는 것이 화평입니다. 그 화평을 따르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 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벧전3:12)

주의 눈은 악인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보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대선을 통해 너무나 분명하게 악이 이기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인의 눈이 분명하게 악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은 반드시 주인의 시간표에 의해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악이 스톱되는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간구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벧전3:13-14)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악행이 일어나고 그 속에 산다 할지라도 의를 가지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맞다면 고난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복된 자구나. 이렇게 악한 시대에 내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복 있는 자구나.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벧전3:15)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내 마음에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두려워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악한 시대에 고난을 받는데 너는 어찌하여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이 있는 모습으로 사느냐? 누가 여러분에게 물었을 때에 우리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 악한 시대에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벧전3:16)

온유와 두려움으로 전도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면서 저들에게 답을 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빛을 선포하는 미션을 가진 자로서 그 내용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고 그들에게 동화되지 말고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서 동화가 되어서 전도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그 짓을 하면서 전도한다?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과거와 악행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벧전3:17)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을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냐는 것입니다.

3.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벧전3:18)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영은 그리스도로서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주인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벧전3:19)

이 옥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지옥에 가서 전도하셨다는 것입니까? 그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벧전3:20)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인구가 약 20억 정도였는데 다 홍수로 죽었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고 창3:15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가 선포되었는데, 그 방주가 지어지는 때 아무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멸망받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옥은 누가 가느냐? 그리스도 없

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아, 나는 그리스도를 듣지 못했습니다, 하고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물을 통해서 구원의 표를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벧전3:21)

물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 곧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방주에서는 물로 말미암아 겨우 여덟 명이 구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물로 다 죽었습니다. 그럼 이 시대도 복음을 붙잡고 사는 자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구원은 많은 사람이 받는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 넓은 방주에 사람들이 들어올 공간이 많았는데 짐승들만 들어오고 사람은 겨우 여덟명이 들어갔습니다. 그 때도 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었는데 단 한 사람도 그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벧전3:22)

그가 하나님이고 그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인간도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론》

▶아내와 남편에게는 가정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아내와 남편 모두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복을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고 미션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빛교회
ζωη φως ἐκκλησία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0-147호

담임목사 : 곽동호

전 화 : 010-5205-4079

E - mail : dhkwak0224@hanmail.net

인생복음상담 : 070-4406-4079